

2013년도 창녕군의회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



○연 수 국 : 필리핀 [마닐라]

○연수기간 : 2013. 3. 11(월) ~ 3. 15(금) [4박 5일]

○연 수 자 : 창녕군의회의원, 공무원 등 16명
[의원 10명, 공무원 6명]



창녕군의회

♣ 목 차 ♣

- ① 연수개요
- ② 방문국(필리핀) 주요현황
- ③ 주요 방문지별 전문사항
- ④ 연수후기 소감

2013년도 창녕군의회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

1 연수개요

○ 연수 목적

- 필리핀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파악·이해하고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해 의정활동의 역량강화 및 의원 직무수행능력 향상 도모
- 문화와 자연생태·온천·경관이 뛰어난 필리핀의 잠재력 있는 문화관광자원의 관리실태와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활성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와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외국어능력향상과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필리핀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참가 학생들의 호응과 성취도 등을 파악하여 우수사례를 군정에 적극 반영

○ 연수기간 및 방문지 주요일정

- 연수기간 : 2013. 3. 11(월) ~ 3. 15(금) [4박 5일간]
- 방문국 주요 여행지 : 필리핀(마닐라)
- 주요일정

일자	지역	교통편	주요 견학지	비고 (숙박)
제1일 (3.11)	창녕 부산 필리핀	• 전용버스 • 필리핀항공(PR 417) • 전용버스	• PR 417편, 마닐라 향발 (출발 20:50, 도착 23:40)	마닐라 호 텔
제2일 (3.12)	마닐라	• 전용버스	• 노인복지시설 방문 • 팍상한 폭포 견학	마닐라 호 텔
제3일 (3.13)	마닐라	• 전용버스	• 마닐라 파사이 시의회 방문 • 따까이 따이 전망대 견학	마닐라 호 텔
제3일 (3.14)	마닐라	• 전용버스	• 마닐라 국립대학(UST) 방문 • 필리핀 푸닝온천 견학	마닐라 호 텔
제4일 (3.15)	마닐라 부산 창녕	• 전용버스 • PR 416	• 마닐라 시내 탐방 (리잘공원, 마닐라 대성당) • 부산도착	

○ 연수자 : 창녕군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 등 16명 [의원 10명, 공무원 6명]

구분	직위	성명	성별	연령	비고
의원 (10)	의장	임재문	男	54	
	부 의 장	김우식	男	62	
	운 영 위 원 장	황의용	男	62	
	총 무 위 원 장	이명숙	女	65	
	산업건설위원장	안홍욱	男	51	
	의원	구자천	男	54	
	의원	신수식	男	66	
	의원	김효곤	男	61	
	의원	손태환	男	57	
	의원	박정삼	男	55	
사무 직원 (6)	사 무 과 장	한삼윤	男	57	
	전 문 위 원	김석연	男	54	
	전 문 위 원	성봉준	男	47	
	의 사 담 당	정차식	男	46	
	사 무 직 원	이헌중	男	53	
	사 무 직 원	박종만	男	46	

※ 사무과장: 연수총괄 / 전문위원(2): 연수기록 및 보고서 작성 / 기타사무직원(3): 일정관리, 사진촬영 등

② 방문국(필리핀) 주요현황

1. 일반현황



○ 정식국명 :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 면 적 : 30만 400km²(남한의 약 3배)
- 수 도 : 마닐라(Manila)
- 인 구 : 현재 10,377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순수 필리핀인을 찾는 것보다 스페인, 미국, 일본, 중국계 혼혈인을 찾는 것이 훨씬 쉽다
- 언 어 : 공용어는 따갈로그어(루손 섬 언어)와 영어이지만 섬나라이므로 지역별 언어가 다르다. 교육을 받은 필리핀인들은 대부분 따갈로그어와 영어에 능하다
- 종 교 : 가톨릭 83%, 기독교 9%, 회교 5%, 기타 3%
- 화폐단위 : 페소(Peso), ※ 1페소는 100센타보
 - 지 페 : 10페소, 20페소, 50페소, 1백페소, 5백페소, 1천페소
 - 동 전 : 1센타보, 5센타보, 25센타보, 50센타보, 1페소, 2페소, 5페소
 - 필리핀 1PHP ⇒ 한화 27원
- 정치체제·원수 : 6년 단임 대통령제로 2013년 현재 대통령은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Benigno Simeon Cojuangoo Aquino)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다

2. 지 리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동북단, 아시아 대륙 남동쪽의 서태평양에 위치해 있는 섬나라이다. 국토는 아시아 대륙과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 흩어져 있는 7,107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무인도로, 사람이 사는 섬은 1,000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산이 많은 지형이라 평야는 많지 않으며 농경지도 부족한 편이다. 화산이 많아 아름다운 산과 호수가 많은데, 특히 루손(Luzon)섬의 비콜(Bicol)반도에 있는 높이 2,421m의 마욘산(Mount Mayon)이 유명하다. 전형적인 원추화산(Konide, 코니데)인 마욘산은 1897년과 1993년에도 화산이 폭발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다. 국토의 면적은 총 300,400km²로 한반도의 1.3배에 이르며, 전체의 65%가 산악지대이다. 104,688km²에 이르는 루손 섬과 101,999km² 만다나오(Mindanao)섬이 국토 총 면적의 65%를 차지한다.

3. 기 후

고온 다습한 아열대성 기후를 나타내며, 1년 내내 기온이 높은 마닐라(Manila)의 연평균 기온은 27°C이다. 계절은 우기와 건조로 나누어지는데, 1년 중 12월부터 4월까지의 건기, 5월부터 11월까지의 우기로 분류된다. 건기 동안에는 비교적 기온이 낮고 비도 적지만 태평양 동해안에서는 건기에도 종종 큰비가 내린다. 몬순은 6월부터 10월까지 남서쪽에서, 11월부터 3월까지 북동쪽에서 불어오며, 태풍은 주로 7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필리핀을 거쳐 가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4. 경 제

필리핀은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들 가운데 발전 속도가 늦은 편에 속한다. 필리핀에는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장애요소가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인프라 및 산업기반 시설이 열악한 점이 중요한 장애요소인데, 거기에 극심한 빈부 격차도 발목을 잡고 있다. 필리핀 통계청의 2009년 자료에 의하면 5인 기준 가구당 월 소득이 134달러 이하인 빈곤층이 전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필리핀의 15대 명문 가문이 전체 국부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는 낮은 농업생산성을 들 수 있다. 노동력의 1/3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국내총생산(GDP)중에서 농업의 비중은 15%로 국내 총생산비중의 30%이며, 서비스업 종사 인구는 51%로 국내 총생산 비중의 55%를 차지한다. 그리고 연 2.04%에 달하는 높은 인구율과 7.4%에 이르는 실업률, 나아가 정부의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도 빼놓을 수 없는 경제발전 방해요소이다. 그러나 2010년 기준으로 약 188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송금, 매장량이 세계 8위에 이르는 풍부한 자연자원, 영어사용,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자 해소 노력과 경제개발 노력을 감안하면 향후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 역 사

16세기 초까지 필리핀은 여러 부족의 집합체로 독립국가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한 인도, 보르네오, 수마트라, 시암 등 인근 국가들과 비교적 평화로운 교역 활동을 했다. 그러나 1521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페르디난도 마젤란이 세부에 상륙하면서 필리핀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가. 스페인의 필리핀 정복

필리핀의 역사에서 스페인 식민지 시대는 스페인이 필리핀을 정복한 1571년부터 미국·스페인 전쟁으로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이 미국으로 이양된 1898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필리핀의 역사가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이 시기 이후부터이다. 필리핀을 처음으로 유럽에 알린 사람은 스페인 왕실의 지원을 받아 세계 일주에 나선 포르투갈의 항해가 마젤란(Ferdinand Mageiian)이었다. 마젤란이 1521년 필리핀의 사마르(Samar) 섬에 상륙한 이래 스페인은 수차례에 걸친 원정 끝에 1571년 마침내 필리핀을 정복했다. 그리고 이 섬나라의 국명을 당시 스페인의 국왕이던 펠리페 2세(Felipe II)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Philippines)으로 정하고 마닐라에 총독을 두어 이후 327년간이나 지속되는 식민 지배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식민 지배는 스페인이 직접 통치하는 방식이 아닌 멕시코 총독을 통한 간접 통치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스페인의 식민지 정책이 유화적으로 변하는 조짐이 보이자 외세에 반대하는 필리핀 민중의 민족주의 정신이 결집되기 시작했다. 1860년에 스페인에서 내란이 발생하자 필리핀에서도 스페인에 대한 저항 운동이 나타났다. 1892년에는 ‘필리핀 민족동맹(La Liga Filipina)’이 조직되어 사회개혁을 시도했으며, 비밀결사조직 ‘카티푸난(Katipunán)’의 무장봉기도 일어났다. 나아가 1896년부터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한 필리핀의 독립운동지도자 에밀리오 아기날도(Emilio Aguinaldo, 1869~1964) 장군은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배하자 1898년 6월 12일 필리핀의 독립을 선언하고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나. 미국 식민지 시대(1898년~1946년) 필리핀의 역사

○ 미국·스페인 강화조약

필리핀의 역사에서 미국 식민지 시대는 미국-스페인 전쟁 후 체결된 미국·스페인 강화조약으로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이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1898년부터 필리핀이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포한 1946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미국은 미국-스페인 전쟁으로 필리핀 독립을 돕기 위해 스페인을 패퇴시키고도 1898년 12월 10일 파리조약에서 2000만 달러에 필리핀 지배권을 넘겨받는다. 이렇게 하여 필리핀은 스페인 식민지에서 다시 미국의 식민지로 넘어지는 처지가 되었다.

필리핀의 독립운동지도자 에밀리오 아기날도(Emilio Aguinaldo) 장군은 필리핀의 독립을 선포하고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미국은 필리핀 점령을 위해 지상군을 파견하여 극렬하게 저항하는 필리핀인 60만 명을 학살했다.

당시 필리핀 주둔 미군 사령관이 아서 맥아더 주니어(Arthur MacArthur, jr, 1845~1912)로, 그의 셋째 아들은 1945년 8월 일본을 항복시키고 일본 점령군 최고사령관을 지낸 후 한국전쟁 때에는 UN군 최고사령관으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12)이다. 아기날도가 이끄는 무장 독립운동은 1899년부터 1901년까지 계속되었으나 1901년 3월 아기날도 체포를 기점으로 점차 소멸되었다.

○ 점진적인 자치 허용

미국의 지배 아래에서 필리핀의 정치 및 행정 체계는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1907년에는 최초의 의회선거가 실시되었고, 1916년에는 양원제 의회가 도입되었다. 1934년에는 미국 의회가 타이딩스-맥더피법(Tydings-McDuffie Act)을 통과시킴으로 10년 후 필리핀의 완전 독립을 보장받기도 했다. 1935년 11월 15일에는 마누엘 루이스 케손(Manuel Luis Quezon, 1878~1944) 대통령의 자치정부(Commonwealth of the Philippines)가 수립되어 미 자치령 정부, 즉 독립과도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다. 일본의 필리핀 점령(1942년~1945년) 및 독립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1월, 일본군이 마닐라를 점령했다. 이어 5월에는 코레히도르(Corregidor) 섬이 일본군에 점령되었고, 필리핀 주둔 미군이 일본군에 항복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필리핀은 일본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1943년 10월 14일, 필리핀에는 조세 파치아노 라우렐(Jose Paciano Laurel, 1891~1959)이 이끄는 괴뢰정부가 수립되었는데, 바로 필리핀의 제2공화국이 출범한 것이었다.

그러나 1944년 10월 20일,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이 레이테(Leyte) 섬에 진주하면서 필리핀 영토 내에서 미국과 일본간의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자국 영토 안에서 벌어진 미국과 일본의 전투로 인해 마닐라는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100만명 이상의 필리핀인의 목숨을 잃었다.

1945년 2월 미국이 다시 마닐라를 점령하면서 미국의 자치령 정부가 부활하게 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1945년 2월 3일, 세르히오 오스메냐(Sergio S. Osmena, 1878~1961) 대통령에게 자치정부를 이양했다.

1946년 7월 4일, 마침내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독립국가 필리핀은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에는 마누엘 로하스(Manuel Roxas, 1892~1948)가 당선되었으나 로하스 대통령은 1948년 재임 중 사망했다.

6. 필리핀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한국과 필리핀은 1949년 수교를 맺은 이래 우호적인 관계 속에 정치적, 경제적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 한국은 필리핀의 8위 수출대상국이자 6위 수입대상국이며, 교역대상국으로는 다섯 번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한국의 17위 수출대상국이자 27위 수입대상국이다. 한국과 필리핀은 1949년 3월 3일 정식 수교를 맺었다. 이듬해 1950년 9월에 필리핀은 우방국으로 한국전에 파병을 한다. 휴전 후 1954년에는 양국 수도에 공사관이 설치되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양국의 정상들이 지속적으로 상호 방문하면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③ 주요 방문지별 전문사항

♣ **마닐라 / 사회복지시설(호스피시오 데 산호세) 방문** ♣ 2013. 3. 12(화)

○ 필리핀 수도 마닐라 말라떼에 위치한 국립고아원 Hospicio de San Jose (호스피시오 데 산 호세)는 1810년에 창설되어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이고, 마닐라 가톨릭대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서, 현재 고아, 장애인, 노인, 미혼임산부 등을 보호하는 곳이다.

고아원 파트는 24개월 미만의 소아파트와 3살 이상의 유아파트로 나누고, 유아파트 방문을 위해서는 최소 1주일 전에는 예약을 하고 방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아이들과 만남을 허가하고, 이곳에는 “룰라”라고 불리는 노인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세월을 수녀원에서 계시다가 노후를 이곳에서 보낸다고 한다.

호스피시오 산호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천국을 만들려는 비전을 갖고 있으며, 이 시설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난한 자를 위한 조직적 자선과 사랑, 가족 중심적 프로그램과 서비스, 전체론적 통합적 고려, 영적 서비스,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혁신적 학습 등을 강조한다.

현재 이 곳에는 영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시설로, 아동과 청소년, 특수욕구를 가진 사람들, 노인과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클리닉, 물리치료 센터, 재활치료센터 등의 시설이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위한 기숙사도 잘 갖추어져 있었다. 관계자는 이곳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라고 말했다. 마침 우리들이 방문한 날 현지 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음식과 놀이 등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호스피시오 데 산호세 설명》

《호스피시오 데 산호세 건물입구》



《호스피시오 데 산호세 전경》



《호스피시오 데 산호세 입구 기념촬영》

필리핀의 복지정책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20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복지행정의 역사,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온 사회개발 사업 및 지역사회조직운동의 전통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친 무혈 민중혁명을 성공시킨 시민사회운동의 전통과 더불어, 1980년대 후반에 개정된 민주 헌법과 지방자치법(1991)이 지방화정책과 시민사회(NGO, PO 등) 참여의 제도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필리핀의 사회복지를 규정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약한 국가’라는 점이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급격한 인구증가, 경제적 침체 등으로 대량 실업과 대량 빈곤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복지자원은 극히 빈약하다. 필리핀의 복지자원이 빈약한 것은 우선 경제성장이 지체되어 GNP 자체가 빈약한데다가, 약한 국가의 역량 부족으로 정부재정 규모도 왜소하고, 그나마 30% 이상의 국가 예산이 외채상환에 쓰이는 등 복지재원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형성된 필리핀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이 요구하는 정책목표는 총체적인 인간개발이지만, 현실에 있어 복지정책의 핵심은 빈곤문제 해결이다. 그것도 보편적 정책보다는 선별적 정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빈곤정책도 전체 빈민보다는 가장 가난한 지역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고, 재해구호사업들도 긴급 상황이 지나가면 방치되기 일쑤이다. 공무원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등이 일부 존재하지만, 보편적 복지제도의 발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빈약한 복지재정은 해외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사회복지개발부의 예산에서 해외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비중이 45% 이상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빈약한 복지재정과 국가역량의 한계에 따른 또 하나의 불가피한 선택은 민간부분, 특히 시민사회운동(NGO, PO)과의 협력관계 형성이다.

민주화 이전에도 시민사회운동은 빈민들이 조직하고 활동해 오기도 했지만, 민주화과정에서 공공행정의 공식적인 파트너로 법적인정을 받으면서, 보다 넓게 활동영역이 확대되었다. 물론 시민사회운동의 재원도 상당 부분 해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참여적이고 시민주도적 복지는 필리핀 정부의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면서, 민중의 주체성을 각성시키는 장점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특히 보편적 복지이나 선별적(선택적) 복지나에 대한 우리사회 내 갈등구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 **마닐라 / 팍상한 폭포수** ♣ 2013. 3. 12(화)

○ 마닐라 시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km, 버스로 2시간을 달려 산타 크루즈(Santa Cruz) 시장에서 지프니로 팍상한까지 20분을 가면 세계 7대 절경에 속하는 **팍상한 강**이 나온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 <플래툰> 과 국내 TV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전쟁과 사랑> 을 촬영했던 곳으로, 이곳의 정식 명칭은 마그다피오(Magdapio)폭포라 한다. 팍상한 강은 이곳에서 가장 큰 폭포를 가리키는 말이다. 폭포수를 가려면 필리핀 전통 나무배(방칼)를 타고 열대 우림을 한 시간 정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방칼**이라는 통나무배는 통나무를 통째로 파낸 것으로 뱃사공은 앞뒤로 2명이 운행하며, 방칼이 좁은 바위 사이를 누비고 지날 갈 때는 앞뒤의 뱃사공들이 손과 발로 밀치고 지나가는데 그 능숙함 노련함에 감탄사가 절로 나게 된다.

강하류부터 시작해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 물의 깊이가 계속 달라져 배의 흔들림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폭포까지 이르는 길 양편에 있는 열대 우림 골짜기를 감상하다보면, 어느새 폭포에 도착하게 된다. 다시 대나무 뗏목을 타고 건너면 폭포 안쪽의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이 팍상한 폭포수를 맞으면 딸을 낳는다는 미신이 있어서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 대부분의 탐방객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놀랐으며, 소중한 생태관광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또한 소중한 생태관광자원을 보전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현명하게 갈고 다듬어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자원으로 활용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팍상한 폭포수로 가는 지피니》



《팍상한 폭포수 출발점》



《팍상한 폭포수로 가는 배》



《팍상한 폭포수 전경》



마닐라 파사이 시청(시의회) 방문



2013. 3. 13(수)

○ 필리핀의 기본 행정단위는 Province(주, 우리나라 도에 해당), City(시), Municipality(우리나라 읍에 해당), Barangay(우리나라 동에 해당) 4가지가 있다. 현재 필리핀의 행정구역은 80개의 주, 1,634개의 시 및 읍, 42,020개의 동 등의 기본행정단위로 나누어져 있고, 또한 필리핀은 수도지역, 코르디예라 행정지역, 만다나오 이슬람자치지역 등 3개 지역을 특별지역(Region)으로 지정해 놓았으며, 인구 1100만명이 살고 있는 수도지역, 즉 메트로 마닐라에는 14개의 시와 3개의 읍이 있고, 인구 150만명이 살고 있는 코르디예라 행정지역은 6개의 주와 하나의 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 270만명이 살고 있는 만다나오 이슬람자치지역은 5개 주와 하나의 시로 이루어져 있다. 필리핀의 지방자치단체장은 3년마다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2회 중임이 가능하며, 지방의회는 3년마다 선거로 선출되는데, 주 의회(Province Board)

10명 내외의 의원으로 구성, 시의회 및 읍의회(Council) 또한 10명 내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동 운영위원회(Barang Council)는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우리가 방문한 마닐라 파사이 시는 1811년 설립되어 초대 시장은 후안데예수이다. 파사이 시는 수도권 지역에서 세 번째로 작은 정치적 구획으로 마닐라 도시에 가장 인접해 있으며, 마카티 시와 따귀 시로 하여 동북과 마닐라 베이에서 서쪽으로 남쪽으로는 파라냐케 시로 제한된다.

마닐라 파사이 시의회는 시청사 건물 내에 있으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며, 의원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있으며, 조금은 협소하지만 의원 각자의 사무실이 있다. 필리핀에서 시의회가 가장 많은 곳은 마닐라시와 퀘존시며 파사이 시는 현재 한국의 제천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고 한다.

○ 필리핀 마닐라 시의회의 노후화된 본회의장 및 시설장비 등을 보고 우리와 자못 비교되었다



《마닐라 파사이 시청(시의회)》



《선물교환》



《의회사무실》



《마닐라 파사이시의회 회의장》

※ 필리핀 지방 행정조직

Province(주)

최대의 지방 행정단위인 Province는 City와 Municipality로 구성되어 있으며, Province에 속하는 모든 City와 Municipality의 행정을 감독한다. 주 의회는 지사, 부지사, 선거에 의해서 선택된 위원회, 대통령이 지명하는 주 자치제 협회의 회장, 바란가이 청년 평의회주 연합의 회장으로 구성된다. 1987년 헌법 이후, 주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필리핀 의회의 제정법이 필요하고 최소한 3,500평방킬로미터의 면적과 50만명 이상의 인구, 1천만 페소의 연간 세수입의 확보가 필요하다.

City(시)

- Component City

Province의 하위 기구로서 다수의 Barangay에 의해서 구성된다. 인구 10만명, 연간 평균 세수입 1천만 페소의 규모가 필요하며, 자주적인 행정이 인정되고 있다. 시의회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인원수는 인구 규모에 비례), Barangay장 연합회 회장, Barangay 청년평의회 연합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 Highly Urbanized City

인구 20만명 이상, 연간 평균 세수입 5천만 페소 이상 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구조는 Component City와 거의 같지만 Province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치 단체이다.

- Independent Component City

특별히 지정된 시로 주민 투표에 의해 결정이 되며, 완전히 Province로부터 독립한 것은 아니지만 보다 많은 자치권이 주어지며, 지방 자치단체 대표자 참가에는 제한이 있다.

Municipality(읍)

Province의 하부 기구로서 다수의 Barangay에 의해 구성된다. 지방 공무원중에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은 읍장, 부읍장,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원들이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는 읍장을 의장으로서 선거로 선출되는 8명 외, Barangay 평의회 연합의 회장, Barangay 청년 평의회 연합의 대표 등에서 구성된다.

Barangay(동)

최소 행정 단위인 Barangay는 City, Municipality의 영역내에서 1,000명 이상의 주민이 있어야 하며 선거로 선출된 Barangay장(바랑가이 캡틴)에 의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의 일선 창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지역 내 주민간의 분쟁이 발생시 Barangay 재판소 역할로서 여러 가지 분쟁을 Barangay Captain이 조정을 한다. 이는 과거 소부족 단위의 각 부족의 추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던 때와 유사하다.

♣ 세계적인 생태명소 따가이 따이 화산 견학 ♣ 2013. 3. 13(수)

○ 필리핀 카비네(Cavite)주 타가이타이시 남서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화산인 따가이 따이 화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마닐라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 따가이 따이는 높이가 해발 600m에 이르는 고지대로 호수에 섬이 있고 그 섬 안쪽에 또 호수가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이중 구조 활화산이다. 1572년에 폭발하여 40회 이상 폭발한 화산이다. 커다란 바다같이 넓은 호수 안에 소재한 칼데라 화산도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곳이다.

버스가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자 아이들이 몰려와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고 반복하여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외치고 춤도 춘다. 이런 모습은 필리핀 어느 곳에 가도 쉽게 볼 수가 있었다.

따가이 따이 화산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어선만한 배로 20여분을 타고 배에서 내리자 말뚝 냄새가 진동한다. 말을 탄 마부가 100여 명이 대기하고 있다. 말과 마부들이 관광객을 태우고 쉴 틈도 없이 산을 오르내린다. 걸어 가는 마부가 있는가 하면 관광객과 같이 타고 가는 마부도 있다. 이 곳의 말들은 제주도의 조랑말과 비슷하다. 어떤 말은 바짝 말라 비슬비슬하고 마부의 등에는 번호가 쓰여 있으며, 손님들이 말에 오르기 편하게 구조물을 해 놓았다. 탈 손님이 옆으로 줄을 서 있으며 말이 한 필씩 다가온다. 한 남자가 사람의 몸에 맞춰 말을 고른다. 힘이 없어 보이거나 약한 말은 그대로 보낸다. 맞은편에서는 부지런히 무언가를 적고 있는 사람도 있다. 남자의 신호에 의해 태우지 못하는 마부도 군말 없이 그대로 간다. 오르내리는 길이 하나라 다소 복잡하다. 내려오는 길과 올라가는 길을 따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았다. 산을 오르는 도중에 땅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곳도 있고 유황냄새도 난다.

산 정상에 도착하자 산 안에 호수가 보인다. 호수 안에 작은 산이 보인다. 멀어서 작은 산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산이 화산이란다. 호수에는 작은 배가 떠다니고, 우리가 배를 타고 왔던 호수가 매우 크게 보이며, 말을 타고 오른 산이 한가운데 있고 사방으로 호수가 있다.

○ 먼지가 풀풀 나는 악조건 하에서도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이용하여 관광 수익을 창출하는 모습이 돋보였으며, 그에 반해 열악한 관광인프라를 새롭게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따가이 따이 화산 전경》



《따가이 따이 화산 출발장면》



《따가이 따이 화산으로 가는 배》



《배에서 내리는 광경》



《따가이 따이 화산에 가는 교통수단》



《따가이 따이 화산에서 바라본 주변 전경》

※ 간단한 필리핀 회화 배워보기

따라이 ⇒ 불효자, 마간다 ⇒ 아침인사로 예쁘다는 말, 꾸비 ⇒ 물
 뽀기 ⇒ 멋지다, 뽕엿 ⇒ 못생겼다, 쌀라마 ⇒ 고맙습니다, 뿌야 ⇒ 오빠
 씨알 ⇒ 화장실, 마까노 ⇒ 얼마예요, 고모스 따까 ⇒ 안녕히 주무셨어요

♣ 산토 토마스 대학(U.S.T) 방문 ♣ 2013. 3. 14(목)

○ 기본현황

- 연 혁 : 1611년
- 교 수 : 1,400명, 학생수 : 37,000명(한국 유학생 200명 정도)
- 위 치 : 마닐라
- 주요학과 : 종교신학과, 법학과, 철학과, 종교법학과, 문학과, 경영학과, 공학,
 상업학과, 사회·예술계열, 건축학과, 교육학과, 의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 특 징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의 하나이며 종교, 철학, 의학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속하며 유서가 깊은 오래된 건물이 많다.

○ 필리핀의 천주교 대학인 산토토마스 대학(University of Santo Thomas)은 아시아에서 역사가 가장 긴 대학이며, 학생 수에 있어서 단일 캠퍼스로는 가톨릭계통 대학 중에는 가장 큰 대학이다. 1611년 4월 도밍고 니에바(Domingo de Nieva)신부, 베르나르도 산타 카타리나(Bernardo de Santa Catalina)신부와 함께 마닐라의 3대 대교구였던 미구엘 베나비데즈(Miguel de Benavidez)에 의해서 사제양성을 위해 설립했다.

대학은 1624년 신학과 철학, 문학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고, 1645년 교황 이노첸시오 10세에 의해 종합대학으로 승격되고, 1902년 교황 레오 13세는 필리핀의 유일한 '교황의 대학'으로 지정했으며, 1947년 교황 피어스 12세기 이 대학에 '필리핀 가톨릭대학교'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1927년 계속되는 학생수의 증가로 인트라무로스로부터 마닐라시 삼빨록지구의 현재 위치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 이 캠퍼스는 21헥타의 총 면적을 가지고 있다.

개교 이래 학교가 문을 닫은 경우는 두 번으로, 한번은 1898~1899으로 스페인에 저항한 필리핀 혁명기간, 또 한번은 1942-1945으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학교가 일본군에 의해서 수용소로 접수되면서였다.

필리핀 4대 명문 대학에 속하는 산토 토마스 대학이 의과대학과 음악대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음대는 입학만 하면 4년 동안 학비가 면제되고, 산토 토마스 대학 음대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한다.

산토 토마스 대학 2층 박물관에는 새, 조개, 작은 포유동물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수공품(목주 등) 및 성물들과 여러 성인들에 관련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대학교내에 있는 400년 역사가 담긴 고문서가 소장된 미구엘 베나비데즈 도서관에는 도서가 45만권이나 소장하고 있는데다 고문서 보관실에는 16~19세기 문화재급 고문서가 세기별로 보관되어 있다.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로마에 대항해 일으킨 반란에 가담해 싸운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프의 『유대 전쟁사』(1492) 초기 간행본도 이 곳에서 볼 수 있다.



《산토 토마스 대학 본관건물》



《산토 토마스 대학 설명》



《선물교환》



《학생과의 대화》



《산토 토마스 대학 2층 박물관 전경》



《박물관에 전시된 화폐》

♣ 온천 시설(푸닝온천) 견학 방문

♣ 2013. 3. 14(목)

○ 필리핀 마닐라 북쪽 푸닝(Punning)에 있는 노천온천은 마닐라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으며 유황온천지대에서 넓은 대지가 화산재로 뒤덮여 있다. 푸닝온천은 1991년 피나투보 화산의 대폭발 이후 생겨난 온천으로 한국인이 개발하여 2005년에 개장하였다. 온천에는 물의 온도가 조금씩 다른 여러 개의 탕이 있는데, 이 곳에서 온천을 하면 50℃ 이상에서만 자란다는 “쿠사츠”라는 미생물이 몸의 노폐물을 제거한다고 전해진다.

푸닝온천을 가기 위해서는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경제특구 ‘클락’까지는 버스로 이동하고, 거기서 푸닝온천까지는 도로가 좁아 버스가 들어가지 못해 지프니로 갈아타고 아이파이족이 사는 원주민 마을로 이동한다. 그리고 아이파이족 마을에서 다시 4륜구동 지프로 옮겨 타 거대한 협곡을 20분 정도 지나면 모래찜질하는 장소에 도착하게 된다. 교실 넓이보다 조금 작은 시멘트 구조물 안에 검은 모래가 쌓여 있다. 옷과 비닐봉지를 받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오면 두 남자가 삽으로 모래를 파고 그 속에 눕자 얼굴만 빼고 전신을 모래로 덮어준다.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면 아가씨들이 부채로 부치고, 수건으로 얼굴에 맺힌 땀을 닦아주기도 한다.

모래찜질을 마치고 다시 4륜구동 지프를 타고 화산재로 이루어진 산들과 그 사이에 온천수가 흐르는 계곡을 한참 달리다 보면, 눈앞에 폭포가 보이고 돌과 시멘트로 쌓은 구조물과 집들이 보인다.

온천은 모두 노상온천으로 여러 군데 있으며, 간단한 음료를 파는 곳, 탈의실과 화장실을 겸한 곳도 있다. 온천수에는 이끼인 듯한 거무스름한 부유물이 떠다닌다. 유황온천이라고 했는데 유황냄새는 별로 나지 않는다. 누군가 물은 미끈미끈하여 정말 좋다고 말했다.

○ 온천에 가는 과정이 험난했고 이곳 역시 한국관광객이 대부분이었다.



《아이파이족 식당 입구》



《아이파이족 식당메뉴》



《4륜구동 지프》



《퓨닝온천 기념사진》



《퓨닝온천 전경》



《모래찜질하는 장소》

♣ **마닐라 시내 탐방(리잘공원, 마닐라 대성당)** ♣ 2013. 3. 15(금)

○ 리잘공원(Rizal Park)

필리핀의 국민적 영웅 호세 리잘(Jose Rizal)을 기리는 공원으로 마닐라 근교 로하스 거리에 있으며, 스페인 식민정책에 항거하던 리잘이 1896년 이곳에서 총살당했다. 공원 입구의 리잘 기념탑 앞에는 무장한 헌병이 지키고 있으며, 기념탑 뒤에는 그가 죽기 직전 조국 필리핀을 위해 남긴 시 “나의 마지막 고별(Mi Ultimo Adios)”이 세계 주요 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공원 내부는 ‘마닐라의 허파’라 할 만큼 숲이 무성하고 정원이 잘 가꾸어져 휴식공간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리잘 기념탑》



《시내 우마차》



《리잘공원 전동차》



《리잘공원 견학》

○ 마닐라 대성당(Manila Cathedral)

필리핀 마닐라의 인트라라무노스(성벽도시) 내 로마광장에 있는 대주교좌성당, 가톨릭 포교의 중심지로 에스파냐 식민지배시대인 1581년에 처음 건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재건되었다.

처음에는 니파(nipa) 야자나무와 대나무로 지었는데 태풍과 화재로 부서져, 1592년 석재로 다시 지었으나 1600년 지진으로 파괴되고, 세 번째 건물은 1614년에 완공한 것으로 3개의 본당과 예배당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1645년 마닐라를 휩쓴 지진으로 무너졌다.

이후에도 지진, 전쟁 등으로 파괴된 것을 연이어 재건하였고, 지금 건물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공격으로 완전히 부서진 것을 1945년에 다시 짓기 시작하여 1958년에 완성한 것이다. 필리핀 건축가 페르난도 오캄포(F드무에 Ocampo)가 로마네스크-비잔틴양식으로 설계하였고, 바티칸의 원조를 받아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재건하였다. 특히 필리핀의 종교적 상징주위를 표현한 스테인 글라스 창과 대성당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청동문이 유명하다. 1981년 교황 요한 바오르 2세에 의하여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소 바실리카(minor basilica)로 지정되었다.

아쉽게도 대성당 내부는 공사 중으로 견학을 하지 못했다.



《마닐라 대성당 입구》



《마닐라 대성당》

4 연수후기 소감

【 임재문 의장 】

2013년 3월 11일 밤 8시 50분 김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 11일 11시 40분에 도착해서 Manila Hotel에 여장을 풀었다. 필리핀은 일년 내내 무덥고 습기가 많은 덥고 메마른 날씨라는 현지 가이드의 설명이다. 인종은 미국과 스페인의 혼혈계인 메스티조로 구성되어 있고 필리핀의 공용어는 타갈로그어이며 111개의 방언이 있으나 중요 신문 방송 언어는 오랜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영어가 사용된다.

아침 9시에 기상하여 KBS, YTN 등 한국 정규방송이 방송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순간 대한민국이 그만큼 힘 있고 잘사는 나라로 인정받는구나 하고 자부심을 갖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

마닐라 말라떼의 국립고아원인 호스피시오 데 산호세(Hospicio de San Jose)는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가톨릭 사회복지시설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천국'을 만들려는 비전을 갖고 있으며, 현재 이곳에는 영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시설로, 아동과 청소년, 특수욕구를 가진 사람들, 노인과 위기상황 놓인 사람들을 위한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클리닉, 물리치료센터, 재활치료센터 등의 시설이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위한 기숙사도 잘 마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 비해 시설과 건물은 노후되고 열악했지만 영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와는 사뭇 달랐고, 그들의 비전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우리도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았다.

귀국을 하고 난 지금도 호스피시오 산호세 관계자의 말인 이 곳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말이 머리 속에 맴돈다.

【 김우식 부의장 】

마닐라에서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마닐라 파사이 시청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다. 어제는 호스피시오 데 산호세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팍상한 폭포를 견학하면서 필리핀의 빈곤층과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계략적인 복지정책을 알 수 있었고, 문화와 자연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개발로 경제적 이득을 증가시키는 문화관광자원의 활용도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필리핀이 한국보다는 부유한 나라였으나(1960년대 GNP, 한국 80달러, 필리핀 180달러, 2007년도 한국 20,000달러, 필리핀 1,100달러) 마르크스 대통령이 21년 동안 장기집권하면서 독재와 부정부패로 국민 경제가 도탄에 빠져 현재까지 후진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으나 97년 IMF 이후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 등의 원동력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2006년 12월 구제금융을 완전히 상환하고 2008년 7%대의 경제성장률과 6년 단임제의 대통령 임기로 민주화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외국 기업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집중하여 다시 일어서는 필리핀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모두 열심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필리핀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임에 틀림없다.

마닐라 파사이 시청을 방문하여 놀란 것은 시청건물이 생각보다 허술하기 짝이 없고 형무소 같은 창문과 벽 쪽에 창살로 보호망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청건물 바로 옆에 실제로 형무소(감옥)가 있었다.

마닐라 파사이 시의회는 시청사 건물 내에 있으며, 의장1, 부의장1,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 연임이 가능하며, 의원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있으며, 조금은 협소하지만 의원 각자의 집무실이 있고, 소회의실은 없으며, 모든 회의는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다고 했다. 시청사 및 시의회 사무용품은 우리나라 80년대 초 수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았다. 이 곳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 자원봉사자 모두가 한국을 좋아했고, 또한 친절하여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배울 것은 배워서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리라 생각하면서 연수 소감을 마친다.

【 황의용 운영위원회 위원장 】

마닐라에서의 셋째 날, 오늘은 필리핀 천주교 대학인 산토 토마스 대학(University of Santo Thomas) 방문이 예정 되어 있었다. 아시아에서 역사가 가장 긴 대학이면 학생 수에 있어 단일 캠퍼스로는 가톨릭계통 대학 중에 가장 큰 대학으로 학교 전반에 대해 궁금한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다. 필리핀 4대 명문 대학에 속하는 이 대학은 21헥타의 총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의과대학과 음악대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고, 일례로 이 대학 의대에 낙방한 뒤 미국 최고 의과대학인 하버드대와 존스홉킨스 의대에 동시 합격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며, 음대의 경우는 입학만 하면 4년 동안 학비가 면제되고, UST 음대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했다.

산토 토마스 본관 2층에는 새, 조개, 작은 포유동물, 여러 가지 수공품(목주 등) 및 성물들과 여러 선인들에 관련된 작품들이 전시된 박물관이 있으며, 또한 대학교 내에 있는 400년 역사가 담긴 고문서가 소장된 미구엘 베나비데즈 도서관에서 45만권의 도서와 고문서 보관실에는 16~19세기 문화재급 고문서가 세기별로 보관되어 있다고 관계자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하고, 필리핀의 독립 영웅 호셀리잘 등 필리핀 유명인사는 거의 이 대학 출신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관계자와 일문일답의 내용이다.

- 대학생들이 왜 교복을 입고 있는지 ?
⇒ 교복을 입지만 면학 분위기는 자유롭다. 발표와 공부를 좋아하지 않으면 졸업하기 어렵다.
- 학생 수는 몇 명이며, 한국인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
⇒ 전체 학생수는 약 37,000명 정도 이 중 한국인 학생수는 200명 정도, 한국 학생들이 대부분 성적이 우수하다.
- 학생들이 오면 가장 걱정 되는 게 생활안전 문제이다. 이곳 치안 상황이나 우리 학생들이 왔을 경우 안전문제는 어떤가 ?
⇒ 안전문제는 크게 걱정할 것 없다. 홈스테이할 가정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곳을 선정하게 된다. 학교는 사설 경비원들이 있어 걱정할 것 없다. 식사도 학교에 식당이 있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홈스테이하면 가정에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 이명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

3월11일 월요일

「의원연수」가 시작되기 전,
“꼭 필요하며 예산낭비는 아닌가? 늘 생각하게 되며 다녀온 후 내가 연수를 통해 무언가 느끼고 깨달음을 바탕으로 얼마나 기여하고 군민을 위해 봉사할 것인가!”를 늘 다짐해본다.

3월12일 화요일

pasay시청 및 의회 방문

시청을 방문했다 들어서기에 앞서 관공서이기보다 재래시장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시장실이라고 안내해서 들어가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버리는 쇼파가 시장실 방문객 접대용으로 버젓이 비치되어 있기에 “이곳이 정말 시장실인가?” 물어봤더니 비서관이 맞다고 했다. 시장님은 시장선거출마해서 유세하러 나가셨다고 했다.

같은 건물 방 하나 사이를 두고 시의회가 있었다. 의장석이 무슨 도끼만행사건이라도 났는지 곳곳이 파손되어 보기 민망할 정도로 흉측스러웠으며 방청석인지 의원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자가 다 합치면 30여 개 정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야외 행사 때 일반인들이 앉는 플라스틱의자였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고 이 정도이면 기업이나 개인도 기부할 수도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비참함을 느낄 정도였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청복도에는 좌판을 놓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시장통인지 관공서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됐으며 나오다 2층 뒷쪽을 보라고 해서 봤더니 벽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교도소」라고 하는데 한국의 서민아파트 정도 될까? 비슷한 건물인데 죄수들이 누워있고 밖을 바라보기도 하는데 혐오감을 느꼈으며, 그 죄수들이 마음만 먹으며 당장이라도 집단탈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 시청공무원들은 늘 불안 속에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 그 또한 어이가 없어진다.

「한국전쟁당시 한국에 1개 대대를 파병하여 한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도왔고 휴전 이후에도 2대대는 13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다리를

건설하는 등 폐허가 된 마을재건과 서울 장충 체육관을 필리핀 기술자들이 건설해주었고 그러다 1955년 5월에 철수한 원조를 해준 나라인데 어찌다!」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도 좀더 절약하고 예산도 무조건적인 투자보다는 좀 더 긴 안목을 보고 투자할 것이며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자신의 기업을 경영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며, 각 의회에서도 다각도로 연구 노력하여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발전하여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기여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필리핀 마닐라의 문화와 자연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개발로 경제적 이득을 증가시키는 관광지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의 관광산업 활성화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연수후기 소감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필리핀 생태관광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팍상한 폭포는 급류타기로 원주민 2명이 한조가 되어 끄는 통나무배로, 급류를 1시간이나 거슬러 올라가 낙차 80m의 거대한 팍상한 폭포를 구경하고, 폭포 내 부로도 들어가 흥미진진한 체험을 한 후 다시 급류를 타고 내려온다. '지옥의 묵시록, 플래툰, 여명의 눈동자' 등이 이 폭포를 배경으로 촬영을 했다. 우리 군의 우포늪에서 통나무를 타고 주변을 탐색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본다.

다음은 따가이 따이 화산은 높이가 해발 600m에 이르는 고지대로 호수에 섬이 있고 그 섬 안쪽에 또 호수가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이중구조 활화산이다. 커다란 바다같이 넓은 호수 안에 소재한 칼데라 화산도 매우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 곳에 가기 위해서는 배로 20분을 타고, 다시 제주도의 조랑말과 비슷한 말을 타고 30분 정도 올라가 구경을 하고 다시 말을 타고 내려오는 곳이다. 우리 군의 화왕산을 좀더 이색적이고 볼거리가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면 좋을 것 같다.

「마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나이로는 20세 안팎, 모두들 결혼했다. 얼굴은 햇빛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모두들 하나같이 새까맣고 먼지투성이에다 연신 남녀 할 것 없이 담배를 피워댄다 이 나라에 아예 금연구역이 아니라 금연에 대한 생각조차 없는 나라인 것 같다. 수입적으로는 일당이 아니라 tip에 의존해서 사는 것 같다.

푸닝온천은 노천온천으로 넓은 대지가 화산재로 뒤덮여 있다. 1991년 피나투보 화산의 대폭발 이후 생겨난 온천으로 한국인이 개발하여 2005년에 개장하였다. 온천에는 물의 온도가 조금씩 다른 여러 개의 탕이 있는데 이곳 온천은 50℃이상에서만 자란다는 “쿠사츠”라는 미생물이 몸의 노폐물을 제거해 준다고 한다. 이 곳에 가기 위해서는 ‘지프니’를 20여분 타고 ‘아이따이족’이 사는 원주민 마을에서 다시 4륜구동 지프니로 옮겨 타 거대한 협곡을 지나면 모래찜질하는 장소가 나온다. 교실 넓이 보다 조금 작을 정도의 시멘트 구조물 안에 검은 모래가 쌓여 있고, 두 남자가 삼으로 모래를 퍼서 얼굴만 빼고 전신을 덮어준다. 이번엔 얼굴에 땀이 흐르면 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채로 부치고 수건으로 얼굴에 맺힌 땀을 닦아주기도 한다.

모래찜질을 마치면 다시 4륜구동 지프니를 타고 화산재로 이루어진 산들과 그 사이에 온천수가 흐르는 계곡을 한 참을 가다보면 폭포가 보이고 돌과 시멘트로 쌓은 구조물과 집들이 보인다.

온천은 모두 노상온천으로 여러 군데 있으며, 간단한 음료를 파는 곳, 탈의실과 화장실을 겸한 곳도 있다. 온천수에는 거무스름한 부유물이 떠다닌다. 이끼인 듯했다. 유황냄새는 별로 나지 않고, 온천을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물은 정말 좋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낙동강 백사장과 부곡온천을 연계하여 백사장에서 모래찜질을 하고 부곡온천을 이용하면 어떨까? (우리 군도 낙동강 모래찜질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으나 좀 더 부곡온천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필요)

지프니에는 창문도 없고 손잡이도 없고 위 뚜껑은 역시 없고 그 가파른 길! 마치 「곡예」를 연상케 하며, 길도 제대로 없어 물이 흘러가는 시내 같기도 하고 폭우가 오면 큰 강으로 변해 버릴 것 같은 길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아예 통행을 차단시켜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곳, 이젠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몰려가 모든 건설을 책임지고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오다 버스가장으로 휴게소에서 정차를 하게 됐는데 차가 한국에서 들여온 중고차라고 하는데 충청도의 어느 학교에서 쓰다 소요년수

가 돼서 버려진 것을 사왔다고 하는데 어쩜 외국인관광객을 그 중고 차로 태우고 다닐 수가 있냐는 말이다!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사고라도 나면 첫째는 그 나라의 망신! 다음은 관광객의 입장에선 그러한 나라에서 만약 사고 가나면 누가 책임질 것 이란 말인가!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차는 고치도록 버려두고 시외로 다니는 고속버스가 마침 휴게소로 오게 돼서 빈자리마다 앉아서 오게 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프랑스의 루르드 샘물이나, 독일의 노르데나우의 광천수는 그 물 하나로 지역 경제가 먹고 살고 있다고 한다. 부곡온천수도 이러한 물들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한 예로 몇 해 전 강릉시에 있는 금진온천수가 가공 제품으로 생산되어 미국에 수출한 바 있고, 국내에서도 리터당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고가에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다. 각 지자체마다 관광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

우리 군에 부곡온천이 있다는 것은 천혜의 자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아울러 최근 영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영어연수를 위하여 필리핀을 선택하고 있다. 필리핀은 저렴한 가격, 가까운 거리, 적은 시차 등의 이점이 있지만, 기반시설이 덜 갖춰진 국가이므로 선블리 선택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한다.

조기유학을 할 경우에는 자녀가 학교에 가서 친구를 사귀게 되므로 학우들의 영어사용 능력과 환경이 좋은 필리핀의 상류층이 많이 사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 자녀들의 영어연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광객으로 인해 먹고 사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인 것 같지만, 나의 경우 물건은 살 것이 없어 아예 사지 않았고(공원에서 “한국돈 만원”이라며 끈질기게 하도 연신 따라오면서 외쳐대기에 구제 차원에서 만원만 샀다)그 외엔 가져간 돈은 정말 tip으로 다 주고 왔다.

숙박비 및 음식비 교통비 말고는 돈을 쓸데가 없었던 것 같다.

관광사업이란 관광을 온 사람이 여러 곳에서 여러 방법으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

【 안홍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필리핀 4박5일 일정으로 연수를 와서 호스피시오 산호세 복지시설, 팍상한 폭포, 마닐라 파사이 시청(시의회) 따가이 따이 화산, 마닐라 산토 토마스 국립대학, 푸닝온천 등을 방문 및 견학을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날 리잘공원(Rizal Park)과 마닐라 대성당을 견학하면 마닐라의 일정은 모두 끝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아침 일찍 한국으로 돌아갈 짐을 챙겨 버스에 타자 10여 분후에 '리잘공원'에 도착했다.

리잘공원은 필리핀의 국민적 영웅 호세 리잘(Jose Rizal)을 기리는 공원으로 스페인 식민정책에 항거하다 1896년 이곳에서 총살당했다. 공원 입구 리잘 기념탑 앞에는 무장한 헌병이 지키고 있으며, 기념탑 뒤에는 그가 죽기 직전 조국 필리핀을 위해 남긴 시 "나의 마지막 고별(Mi Ultimo Adios)"이 세계 주요 국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공원 내부는 '마닐라의 허파'라 할 만큼 숲이 무성하고 정원이 잘 가꾸어져 휴식공간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으로 마닐라 대성당(Manila Cathedral)은 마닐라의 성벽도시 내 로마광장에 있는 대주교좌성당으로 1581년에 처음으로 건축되어 지진, 전쟁 등으로 연이어 파괴되어 지금의 건물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공격으로 완전히 부서진 것을 1945년에 짓기 시작하여 1958년에 완성한 것으로 로마네스크-비잔틴 양식으로 설계하여 지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아쉽게도 대성당 내부는 공사 중으로 견학을 하지 못했다.

이로써 4박 5일간의 필리핀 일정을 마치면서 필리핀 사회구조에 대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필리핀의 열악한 치안 환경에 대해서다. 필리핀의 인구는 약1억명으로, 경찰 총 병력은 10만명 수준으로 1인당 약1,000명, 수도권 등 인구 밀집지역에는 약5,000명의 치안을 책임지는 수준이며, 경찰의 부정부패도 심각하여 살인, 납치, 금품 갈취, 마약 등 강력사건에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연간 1만건 이상의 총기를 이용한 강력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경찰의 수사기법은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한다.

다음은 **교육**으로 필리핀 최초의 대학은 1611년에 설립된 산토 토마스 대학이며,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는 성직자들에 의한 종교교육을 위주로 운영하다가 1946년에 완전독립을 달성하여 1935년 헌법을 기반으로 민족주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영어와 타갈로그어를 공용어로 하는 독자적인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4년(우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 교육), 대학교 4년이 기본이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6세이며, 중등교육까지는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배울 수 있어 개발도상국 중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대학생의 40% 정도가 마닐라 소재 대학에 다니고 있어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상태였다.

필리핀의 **최저임금** 수준은 각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메트로 마닐라의 경우 1일 비농업367페소, 농업367페소(2011.3월 기준)이다.

필리핀의 **교통**은 이곳 지리/영어표지판에 낯설은 우리 한국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복잡하여 정신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상당히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마을버스 개념같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지프니', 외국인이 흥정하기는 어렵지만 가자는 곳까지 기다리라면 한 두 시간까지 밖에서 기다리기도 하는 '트라이시클, 노선을 알아볼 수 없어 어렵긴 하지만 바가지 쓸 걱정 없는 ' 시내 버스', 모노레일 타는 기분이 드는 'LRT'(한국의 지하철이나 기차 개념),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택시, 나름대로 편리하다. 24시간 지프니는 밤늦은 귀가걱정을 없애주고 애뜻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신호체제는 정말 엉망이다, 그런데도 교통사고는 거의 없다. 운전자의 양보와 미덕 때문인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일행 중 누군가 필리핀의 교통을 보고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다고 한 말이 생각난다.

필리핀의 **환경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벌목과 무차별적 농토 확장으로 사라지고 있는 열대우림, 해수면 상승과 수온상승으로 파괴되고 있는 해양 생태계, 도시지역의 생활배수 및 생활환경 쓰레기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늦게나마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해 시작된 노력은 한번 두고 볼 일이다. 과거에는 한국보다 부유한 나라였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보고 듣고 느낀 견문의 확대로 앞으로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연수 소감을 마친다.